

자마 강순영 목사 은퇴 “미국 부흥과 회복 운동 이어갈 것!”

자마 차기 리더십 4인
공동 대표 체제로 전환

지난 7년 동안 자마(이하 JAMA,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All Nations) 대표로 섬겨온 강순영 목사(71)가 정년을 맞아 지난 12월 말로 대표직에서 은퇴했다.

강순영牧사는 1993년 11월 김춘근 교수와 함께 JAMA 운동을 시작해 JAMA 총무, 부대표를 거쳐 김춘근 교수에 이어 제2대 대표로 사역해 왔다. JAMA Global 이사회는 강순영 목사의 헌신과 노고를 인정해 제2대 원로 대표로 추대를 결정했다.

강 목사는 앞으로 미주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미국의 부흥과 회복을 위한 전국적인 중보기도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면서 지난해 시작한 청교도 이주 400주년 기념 청교도 신앙 회복 부흥 운동을 위한 사명 또한 굳게 붙들고 사역할 계획이다.



김춘근 교수가 강순영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강 목사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는 대로 미주 전역을 순회하면서 미주 한인들이 제2의 청교도의 사명을 계승하고, 미국의 성결과 부흥을 위해 힘쓰도록 이끌 예정이다.

JAMA 설립자이자 JAMA 글로벌 캠퍼스 이사장인 김춘근 교수는 “

자마의 대표직에서 은퇴하지만 미국 전역의 부흥을 위해 헌신하실 강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며 “부패하고 타락한 미국이 청교도 신앙 회복 부흥 운동을 통해 다시 한 번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게 되길 소망한다”

라고 밝혔다.

한편 자마는 차기 리더십 선출과 관련해서는 일인 리더십이 아닌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4명이 팀을 이룬 공동 리더십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차기 리더십으로는 현 자마 수석

부대표인 캐시 랍(Cathy Rabb), 현 자마 글로벌 이사회 수석 고문이자 운영 총괄을 맡고 있는 크리스토퍼 루시(Christopher Lucey), 현 자마 글로벌 이사이자 볼티모어 새소망교회 부목사 겸 청년 담임목사인 엘리야 안(Elijah Ahn), 현 자마 글로벌 이사이자 연방검사인 폴 김(Paul Kim)이 이사회 의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김춘근 교수는 “그동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은총에 힘입어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자마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차기 리더십은 한 명의 리더십이 아닌 탁월한 신앙을 갖춘 4명의 40대 영예권 청장년 전문 사역자들로 구성되어 감사하다”며 “공동 리더십을 통해 회개, 각성, 기도, 부흥운동, 세계 선교, 주택 개발, 농업, 캠퍼스 사역 등 자마의 모든 사역이 놀랍게 발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동욱 기자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 “원활한 정권 인계” 당부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 ©페이스북

미국의 복음주의자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가 치유와 화해를 촉구하는 연설을 한 도널드 트럼프 대

통령에게 조 바이든과 카말라 해리스 정·부통령 당선자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치유와 원활한 (정권) 이행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9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그래함 목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밤 대국민 화합을 요청하는 연설을 해 준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께 감사한다”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자,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원활한 이행을 위한 치유와 준비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래함 목사는 “우리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 해리스 부통령 당선자, 그리고 워싱턴의 다른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함 목사의 메시지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자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물어본 모든 이들에게, 난 1월 30일 취임식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7일 트위터에 올린 2분짜리 영상에서 “분노를 가라앉히고 차분히 회복해야 한

다. 이 순간에는 치유와 화해가 필요하다”면서 “올해 2020년은 우리 국민들에게 힘든 시기였다. 위협적인 대유행은 시민들의 삶을 망치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고립시키고, 경제를 해치고,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다. 이 대유행을 극복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큰 경제를 재건하려면 모두가 함께 일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애국심, 신앙, 자선, 지역 사회와 가정의 시민적 가치를 새롭게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한 민족으로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사랑과 충성의 거룩한 결속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했다.

지난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회의사당에서 소요를 일으킨 가운데 그래함 목사는 “미국의 분열은 남북전쟁 후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저는 기독교인들에게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자를 위한 기도와 양당의 지도부를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을 것을 촉구한다. 모두 비난을 멈추고,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관해 양 당사자들이 모두의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길 기도하라. 미국 국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지파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 할인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CERTIFIED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 월~금 : 8AM~6PM, 토 8AM~4PM *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730-0112, (323)735-3180

2021 HAPPY NEW YEAR
은혜한인교회 GRACE KOREAN CHURCH 한기흥 담임목사
신년축복성회
"인생역전을 이루라!"
LIVE **www.gracemi.com**
일시: 2021.1.21(목)~24(주일)
목 7:30pm, 금 5:30am, 7:30pm
토요일 6:00am, 7:30pm
주일 1부 7:30am, 2부 9:20am, 3부 11:30am, 4부 2:00pm
강사: **김병삼 목사(분당만나교회 담임)**
은혜한인교회 본당(온라인예배)
한기흥 담임목사 은혜의 말씀 방송
우리방송 AM 1230 JSTV 미국지역 CH 668(Dishnet) 오전 08:30(주 일) 오전 08:00(주 일) TBO Play CH 25 CHTV크리스천에널드 오후 12:00, 9:00(주일)
San Diego Radio Korea 오후 04:00(월요일)
TBO Play CH 25 CHTV크리스천에널드 오후 04:30(화요일) CTS TV 미국 CH 2092(Directv) 오후 08:00(화요일)
KCBS Chicago AM 1590 오전 10:20(수요일)
JSTV 미국지역 CH 668 오전 06:00(목요일)
CTS TV 미국 CH 2092(Directv) 오전 03:30(금요일) Radio Seoul AM 1650 오전 05:30(금요일) 미주복음방송 AM 1190 오전 11:30(금요일) CTS TV 한국(금) 오전 05:00(한국시간)
Radio Seoul AM 1650 오전 06:30(토요일) CTS TV 미국 CH 2092(Directv) 오전 04:00(토요일) JSTV 미국지역 CH 668 오전 04:00(토요일)
그외 인터넷 방송 KCMUSA.org(재미한인기독교선교재단) SBN(Smart Broad Casting Network) SON Ministry(GMAN Radio) KCBN (미주기독교방송국) GKCTV
은혜한인교회 150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 TEL : 714.446.1000 www.gracemi.com

미주성시화운동 홀리클럽 초대회장 김경수 장로 소천

미주홀리클럽 초대회장과 미주 KCCC 이사장을 역임한 김경수 장로(나성열린문교회, 담임목사 박헌성)가 미국 시간으로 4일 오후 7시경 코로나19로 투병 중 향년 82세의 일기로 소천했다고 세계성시화운동본부에 밝혔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故 김경수 장로의 장례식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6주 후에 로즈힐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故 김경수 장로는 1939년 9월 15일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치과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962년 CCC 입석수양회에 참석해 김준곤 목사(한국CCC 설립자, 1925-2009)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후 ‘민족 복음화와 세계복음화’에 헌신했다.

그는 1969년 영적 스승 김준곤 목사의 주선으로 선교학자 노봉린 박사의 여동생 노경자 권사(CCC 간사 역임, 이화여대 CCC 나사렛

형제들)와 결혼 후 도미(渡美)하여 1973년 남가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LA주정부타운에서 일하면서 치과의원을 개원하여 평생 진료활동을 하면서 미주 KCCC 이사장으로, 재미CCC나사렛형제들 회장으로, 미주성시화운동본부 미주홀리클럽 초대회장으로 한인복음화와 대학생 선교사역을 후원했다.

또한 마약환자들과 홀리스들을 돕는 일에 참여를 했으며, 치과선교회를 조직해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에 치과의원을 개설했고, 치과의사들과 함께 남미, 키르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의료시설이 낙후된 나라를 찾아가다니면서 무료진료활동에도 힘썼다. 환자를 새로 개업하는 한인치과의사들에게 가서 진료를 받도록 연결, 환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진료시간대에는 일부로 휴진을 하면서 후배 의사들을 섬기기도 했다고 한다.

아울러 나성영락교회 박희민 목



김경수 장로.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제공

사, 미주평안교회 송정명 목사, 한미은행 백은학 장로, 미주한국일보 옥세철 장로 등 LA의 저명한 목회자

와 평신도 지도자들과 함께 미주성시화운동, 홀리클럽을 창립하고, 미주홀리클럽 초대회장을 맡아 미주

성시화와 유럽 등 세계성시화에도 앞장섰다.

김신의 기자

한인가정상담소 “제2의 정인이 나오지 않아야”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독려 한국어 핫라인 이용 당부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캐서린 엮)가 LA 아동보호국(DCFS)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주 한인들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인가정상담소에 따르면 코로나 19 사태 속에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 아동 학대가 이전 보다 증가되었을 거라 예상되지만 실제 신고건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가정상담소는 “아동학대는 대부분의 경우 가족 구성원들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 파악조차 어렵다. 특히 피해 아동 스스로 신고하기 어렵고 코로나로 인해 학교, 유치원 선생님 등의 신고의무자 신고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많은 아동들이 코로나로 인해 집에 머무르며 침묵 속에 고통을 받고 있어 주위 어른들의 세심한 관심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캐서린 엮 소장은 “한 사람 혹은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아동학대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며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한인 여러분들이 깊은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학대 혹은 방치를 의심해 볼 수 있는 경우로는 △사고로 보이기에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 화상이 보이는 경우△골절 혹은 눈에 멍이 든 경우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굶거나 영양실조,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를 보이는 경우 △아동이 보호자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 (욕설, 비고, 감금 등)을 당하는 경우 등을 꼽았다.

아동학대 신고는 학대나 방임을 목격한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선의의 신고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또 신고 의무자를 제외한 모든 신고자는 익명 신고가 가능하다.

한편 한인가정상담소에서는 학대 아동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 및 제발 방지 서비스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코로나 관련 지원, 친지 양육자 지원 등 여러 자원을 통해 도움 받을 수 있다. 또한 학대 아동이 위



한인가정상담소 캐서린 엮 신임 소장

탁가정의 보살핌을 받게 될 경우 엄격한 심사 및 모니터링을 통해 위탁 아동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고 있다.

LA 카운티 아동보호국은 아동 학대 피해자 신고를 늘리기 위해서 웹사이트(<https://dcfs.lacounty.gov/>)와 24 시간 핫라인(800-540-4000)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있다. 또 한인가정상담소 213-235-4843 로 전화해도 도움 받을 수 있다.

김동욱 기자

북한 선교의 부르심과 사명 재확인 한다

제12회 미주 온라인 북한선교학교

주 제 : 내 손에서 돌이 하나가 되리라(겔 37:17)
 기 간 : 2021년 1월 26일 - 4월 13일 매주 화요일(12주)
 등 록 비 : 일반 70불 (회차 사모 신학생 60불, 할복자 50불, 부부 등록시 10불 감면)
 신청 및 문의 : 정은경 간사 E-mail: novonorthkorea@gmail.com / 626-354-9675
 선 정 방 법 : 등록신청서를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송부
 등록비는 수표 또는 Verano-1 Quik Post/China Bank로 등록, Pay to: Jeremiah Suh 5706 Sorrel Hills Ave China Hill, CA 91709
 주 회 : 통일소망선교회 (대표: 이영민 선교사 서울시 구로구 고척로 28 에버랜드 2층)
 주 관 : NOVO North Korea (대표: 사제대미아 선교사)

통일소망선교회(대표 이영민 목사)는 오는 1월 26일(화)부터 4월 13일(화)까지 제12회 미주 온라인 북한선교학교를 개최한다.

온라인 북한선교학교는 “내 손에서 돌이 하나가 되리라”(겔37:17)라는 주제로 12주 동 안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강사로는 NOVO North Korea 대표 서예 레미아 선교사를 비롯해 미주 통일선교전략협의회 대표 김요한 목사, 미주 주빌리통일구국 기도회 총무 임현석 목사, 이빌

립 목사 등 한국과 미주의 북한 선교사역자 12명이 나선다. 강의를 “북한 주체사상과 기독교의 비교”, “북한 사회의 영적인 이해”, “탈북자 구출 사역의 중요성과 교회의 역할”, “탈북자 이해와 효과적인 양육사역”, “미주에서 할 수 있는 북한 선교 사역과 의의”, “북한 교회 재건 전략” 등 북한 선교에 있어 유의한 주제들을 다루게 된다. 등록비는 70달러. 문의 이메일 novonorthkorea@gmail.com 전화 626-354-9675 정은경 간사

코엠 커뮤니티 센터
 KOAM Christian Community Outreach Center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립니다.

- 비영리단체등록
- 특허
-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 주 교육국(인준) 상담해 드림

David Lee (213)422-8916, (818)523-1119

임상우 이민법 변호사
 J.D. (법학박사) & LL.M (전문 법학학위/Post Doctorate Degree)
 Golden Gate Law School 졸업
 미국 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연방법원 출두 자격소지
 Member of AZ Bar & AILA
 이민법변호사 경력 2003년 10월 부터 현재까지
 다음카페 미사모 이민상담 변호사 2007년 3월부터 2013년 8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법전문사이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 중앙 방송, 미주 중앙 TV, 라디오서울, 라디오 코리아, TVK 중앙일보 웹사이트, YIN 뉴스 라디오 등 이민강연/상담 경력

미국 정착의 지름길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투자이민 상담환영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 지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 학생비자

- ▶ 가족초청 이민업무
- ▶ 체류기간 연장
- ▶ 시민권 취득
- ▶ 추방 재판
- ▶ 기타 전반 이민업무

www.davidlimlaw.com

213.251.5554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미주한인이민 118년, 한인 정체성 바로 세우고 차세대 위한 발판될 것!

미주 한인인날 16주년 기념행사 및 미주한인 이민 제 118주년 감사예배가 미주한인재단LA(회장 이병만) 주최로 지난 9일 코너스톤교회(담임 이종용 목사)에서 개최됐다.

올해 한인의 날은 지난 선거에서 미주 한인 4명이 연방 하원에 입성한 것을 비롯해 다수의 한인 정치인들이 정계에 진출하면서 어느 해보다 기쁨과 감격이 더했다.

현장과 유튜브 생중계로 동시 진행된 기념식에는 박경재 LA 총영사, 잔 리 LA 시의원, 박영선 부에나파 부시장, 팻 부이 가든글로브 시의원이 직접 참석해 축하했으며, 최석호 가주 하원의원이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 미주 한인의 날을 축하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LA시, 캘리포니아 주 청사, LA 카운티 선포문 및 결의안이 미주한인재단LA에 전달됐다. ©기독일보

축사를 전한 박경재 총영사는 “미주 한인 1세대와 차세대가 한인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가지고 미 주류 사회와 커뮤니티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과 한미간 우호증진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부에나파시 부시장은 “미

주 한인들이 이제는 한인 커뮤니티를 넘어 우리가 살고 있는 미 주류 사회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더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미국의 변화와 발전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 캐서린 바거 LA 카운티 수퍼바이저는 영상상

통해 미주 한인들이 사회 모든 분야에서 펼친 헌신적인 노고를 인정하면서 미국의 발전에 기여한 점에 감사사를 표했다.

올해 한인의 날을 준비한 이병만 회장은 “118년 전 미주에 첫 발을 내딛으신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오늘날 미주 한인들이 미국 사

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됐다”며 “이제는 미주 한인들이 우리의 이민역사와 정신을 기억하며 차세대를 위한 발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부 감사예배에서 김영구 목사(세계기도모임 미서부지부장)의 사회로 송병주 목사(선한정지교회),

미주한인재단 LA 자문위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갈 3:28)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송병주 목사는 “미주 한인들이 이제는 배타적이거나 차별적인 마음이 아니라, 더욱 열린 마음으로 복음 안에서 하나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일으키길 원한다”며 “미주 한인들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인종간, 세대간, 계층간의 갈등과 분열을 종식시키고 연합과 평화의 시대를 열어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미주한인재단은 미주한인 이민 120년을 기념해 올해 가을 “미주 한인 이민 120년사”를 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주 한인 이민 120년사”에는 서재필 박사, 이승만 박사, 안창호 선생, 유일한 박사, 김영옥 대령, 임동선 목사, 이휘소 박사, 백남준 선생 등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크게 기여한 15명의 전기가 수록되며, 2023년에는 영어로 번역해 미 주류사회와 한인차세대에 널리 보급할 계획이다.

김동욱 기자

전미복음주의협회 “미국 교회, 2020년 대선 이후 ‘연합’ 필요”



전미복음주의협회(The 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 NAE) 월터 김 대표.

전미복음주의협회(NAE)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독교 지도자들은 2020년 선거 이후 미국 교회가 가장 연합이 필요한 시기라고 믿고 있다고 7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NAE가 시행한 월간 설문 조사에서 대학, 선교부, 출판사, 교회와 교단 기독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선거 이후 미국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조사에 참여한 리더들은 많은 답변을 했지만, 연합이 가장 필요하다고 대답했다고 설문 조사는 밝혔다. 월터 김 NAE 대표는 CP와의 인터뷰

에서 140명이 넘는 기독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케네스 하더 구세군 사령관은 “미국은 연합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것 없이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

고 있는 엄청난 도전에 대처할 수 없을 것이다.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보다 연합을 이루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 믿는다”라고 NAE에 말했다.

지난 두 차례의 대선에서 연합은 패자보다는 승자에게 인기 있는 주제였음이 입증됐다고 CP는 전했다. 2020년 선거에서 조 바이든 당선자는 연합을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통령에 당선된 후 연합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미국이 분열되면서 연합이 더욱 중요해졌다”라며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간청하신 내용이 연합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연합을 소중히 여기고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CP에 “분명히 우리는 엄청난 양극화에 직면했고 그것은 여전

하다”라면서 “단순히 미국인으로서 함께 나누는 일상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핵심이다. 예수님은 신자들의 연합을 위해 기도하셨다”라고 말했다.

이어 “연합은 집단 내에서 갈등을 피하거나 집단의 견해를 공유하지 않는 자들을 추방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며 “이러한 접근 방식은 ‘거짓된 연합’을 만든다. 대신, 연합은 서로를 이해하고 차이점을 논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낙태와 같은 문제에 대해 기독교인들은 상황이 복잡하며 정책 해결책이 종종 많은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라며 “어떤 사람들은 낙태를 금지함으로써 낙태를 중단하고 싶어한다. 다른 사람들은 여성이 낙태가 유일한 선택이라고 느끼지 않도록 빈곤과 절망을 없애고 싶어한다. 다른 사람들은 성도

덕에 대한 미국인의 태도를 바꾸어 사람들이 혼외성관계를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모든 관점은 가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낙태는 정말 복잡한 문제다. 태아 살인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러한 상황을 초래하는 요인도 있다”라며 “여성에게 낙태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 자들과도 여전히 그들과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독교인들은 그들과 동의하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다가가도록 부름을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죄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사람들을 파문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신약 성서의 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추방했지만 이것이 첫 번째 선택이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덧붙였다.

이미경 기자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빛은 그로
외면하지
않았어

Righteous
Outlaw

굶주림
보다 더 큰
목마름

책의 추천자들:
오대현목사(예수전도단), 주선영교수(성신대 영예교수)
이종원목사(예수전도단), 송정영목사(복음전도 운동대표),
김준목사(유일대주대표), 신영민목사(복음전도 대표),
유관지목사(동일대표), 김인식목사(KCC공동대표)

박상원 목사
책의 편집자

* 영의 책은 아예 연락처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20/권 + \$5 우송료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과 수록 ‘빛은 그로 외면하지 않았다’는 북한 김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하성도들의 순교종언으로 지역에서 전국으로 옮겨지는 기적같은 여정이고, 우리에겐 복음통일의 완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울림이다.

* 체크오더양: GBMW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는 세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기독교복음선교회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 (425) 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안녕하세요? 18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달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달려보면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APPLY or TRANSFER NOW

**GOD FIRST
SINCE 1899**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 오렌지 캠퍼스
ONLINE COMING SOO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한국어 프로그램

- 목회학 (MAPS)
- 목회학 석사 (M.Div)
- 목회학 박사 (D.Min)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189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 순교의 땅에서 부는 부흥운동(1)”

멕시코는 매우 큰 나라다. 최 남단 지역이 치아파스주다. 크기가 남한 땅보다 크다. 거의 대부분 울창한 밀립지역이다. 높은 산맥이 그 가운데를 버티고 있다. 치아파스에는 켈탈족, 쥘족 등 여러 종족들이 군락을 이루어 산다. 지역 주민들은 그들의 지역을 ‘검은 정글’이라 부른다. 그 지역은 멕시코 정부군에 대항하는 반군들이 장악한 곳이다, 여러 차례 정부군과의 전쟁에서 이겼다. 치아파스 반군의 중심 도시가 오쾡쾡이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대부분 그 지역에서 올라온 유학생들이다. 1800년대부터 미국의 장로교단이 엄청난 자원과 인력으로 선교를 펼쳤으나 열매 맺지 못하고 1977년에 모두 철수한 곳이기도 하다.

미국 개신교단 대표들이 멕시코의 남부는 장로교가, 중부는 침례교가 북부는 감리교가 맡아 선교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모두 멕시코 토착 신앙의 벽을 넘지 못하고 실패하였다. 필자가 보기에는 적어도 미 장로교단의 선교는 실패하지 않았다. 그들의 선교를 통해 멕시코 민족 장로교단이 150년 역사를 이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치아파스 주를 중심으로 민족 장로교단은 15개 시, 도에 71개 노회 산하 3500여 개의 교회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다음 세대를 키워 내는 신학교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퇴락의 길로 가고 있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은 한인 선교사들을 사용하셨다.

1992년 한국에서 선교사 사명을 갖고 미국으로 파송된 임원석 선교사 부부가 그들 중 하나이다. 미주 해외 한인 장로교 서노회 1호 파송 선교사로 두 부부는 멕시코 멕시코칼리 땅을 정했다. 그렇게 그들은 황량했던 광야 땅을 개간하며 신학교의 꿈을 꾸기 시작했다. 개척하여 터와 건물을 세우기까지 3년여의 개척 시기를 거쳐 1995년 한국 포함 노회와 미주 서노회의 지원을 받아 멕시코칼리 장로회 신학교를 시작하였다. 임 선교사는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남부지역 장로교단의 텃밭인 치아파스 오쾡쾡로 직접 운전하여 꼬박 3일 길을 가는 고행길을 시작하였다. 그렇게 그곳 교회들을 방문하여 신학생 후보들을 추천받고 그 부모를 설득하면서 첫째 11명의 학생들을 입학시켰다. 그렇게 24년이 흐른 지금 신학교는 22회 졸업식을 치렀고 308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1회 졸업생이



이상훈 목사
멕시코장로회신학대학장

배출된 1999년도부터 신학교에서 우수하게 훈련받은 교회 지도자들이 그들의 고향 땅인 치아파스로 들어갔다.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기 시작했다.

아직 멕시코는 여성안수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 남학생 졸업생들 중 160여 명이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들이 교회를 개척하여 교인들이 모여져 부흥이 일어나면 본교로 교회 건축 요청이 들어왔다. 목사도 있고 교인도 있는데 교회가 없는 곳에 임 선교사 내외는 하나둘씩 한국과 미주의 후원교회들의 지원으로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22회째 졸업식을 맞았는데 세워진 교회가 70개다. 현재도 3개 지역 교회가 건축 중이다. 거기에 오쾡쾡 지역에서 개척하여 지금은 큰 교회를 인도하는 동문 목사가 교회의 터를 제공하여 선교센터를 건축 중에 있다. 이 선교센터는 우리 학교의 비전의 중심이 된다. 그곳은 치아파스 현지의 목회자들을 재훈련하며 정식 대학원 과정을 오픈하여 치아파스의 교회들에게 우수한 지도자들을 공급하는 영적센터가 될 것이다.

선교센터의 건축과정은 실로 은혜롭다. 터는 현지 동문의 교회 터에 건축 자체는 후원교회의 헌금과 동문교회들의 자재 헌납으로 그리고 건축인력은 지역 동문교회들의 성도들이 당번을 정해 한주씩 헌신하면서 지금 완공을 앞두고 있다. 멕시코칼리 국경에서는 우리 신학대학의 학부생들이 배출되어 치아파스 및 멕시코 전역으로 파송되고 있다. 지금 우리는 멕시코 선교부흥의 중심에서 있다.(계속)



치아파스 선교대학원 건축중

강태광목사의 인문학 강의 14

성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아기 예수 수난과 헤롯 왕가!”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가 새롭게 태어난 왕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롯왕은 유대 땅에 다른 왕이 태어난다는 말을 듣고 소동했습니다.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자문을 구합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새로운 유대의 왕이 나올 것을 예언한 구약 성경을 읽으며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줍니다. 헤롯은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동방박사들에게 아기 왕을 만나면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어린 왕을 죽일 작정이었습니다.

헤롯왕은 동방박사들을 기다렸으나 동방박사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려도 동방박사들이 오지 않자 헤롯왕은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박해를 합니다. 유대지방에만 유아처형령을 내릴 수 없어서 유대를 포함한 시리아 지역에 대대적인 유아 처형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무려 14,000명의 유아들이 죽었습니다. 한국의 김용옥씨를 포함한 몇몇 작가들이 이 장면은 마태의 허구적 작품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4세기 말에서 5세기에 활동했던 라틴의 역사학자요 철학자인 마크로비우스(Macrobios)는 당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유대지역에서 헤롯왕이 두 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면서 헤롯왕 자신의 어린 아들도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전합니다. 아울러 그는 아우구스투 황제가 ‘헤롯의 집의 돼지가 헤롯왕의 아들보다 더 낫다’고 말한 것을 전합니다.

에버렛 퍼거슨(Everett Ferguson)박사는 헤롯의 잔학성을 언급하면서 성경의 기록이 사실일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헤롯 왕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의심나는 모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아들도, 아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헤롯의 평소 행적을 고려할 때 유아 처형령은 신빙성이 있는 사건이라고 주장합니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처남과 아내 심지어 자신의 아들까지 처형한 잔인한 독재자였습니다.

유대인 역사가로 그리스-로마 시대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전하는 조세푸스는 헤롯왕의 파격적 잔악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성을 강조합니다. 헤롯왕은 자기 죽음이 다가 오자 자기를 위해 애도할 백성이 없다는 것을 예감하고 많은 유대인 지도자를 자신의 죽을 때쯤 처형하게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애도의 눈물과 통곡에 자신이 사망을 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원래 헤롯은 예서의 후예인 에돔인입니다. 폼페이우스의 유대 침공을 도왔던 안티파테스가 아들입니다. 폼페이우스를 도운 아버지의 도움으로 헤롯이 유대의 왕이 됩니다. 이두메 족속으로서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것은 논란거리가 되는 상황에 헤롯은 유대교로 개종하면서 법적, 종교적으로는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개종한 유대교인이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헤롯왕이 탁월한 건축가라는 것입니다. 건축학계에서는 헤롯을 높이 평가합니다. 헤롯은 이두메인들을 무시하는 유대인들의 정서를 알고 있었기에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하스몬 왕가의 공주 마리암과 결혼을 하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건축합니다. 자신의 건축술을 정치적 야심에 활용하여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헤롯성전은 B.C.19년 솔로몬성전, 스톱바벨성전이 섰던 자리에 헤롯이 착공해 외부는 9년 만에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공사는 지연되어 그가 죽은 후에도 중단 지속되었습니다. 결국 헤롯 성전은 A.D. 63년경 헤롯의 증손자 아그리파 2세 시절에 완공됩니다. 이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는 것을 목적으로 했던 헤롯 가문이 외부

완공 후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롯의 추악한 야심으로 건축되는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라고 말씀하십니다.(요2:19-21). 80년이 넘는 장구한 세월엔 건축된 이 헤롯 성전은 곧 무너집니다. A.D. 69년 티투스(Titus) 장군이 유대인들의 폭동을 진압하면서 성전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헤롯왕 가문은 복잡합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여러 헤롯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등장하는 헤롯왕은 헤롯대왕(Herod the great)입니다. 헤롯 대왕은 10명의 부인을 두었습니다. 그 중에도 빼어난 미모를 자랑하던 마리암네 1세가 가장 사랑받았지만 그녀를 헤롯이 죽입니다. 불행하고 복잡한 헤롯 인생을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14:3에 등장하는 헤롯왕은 헤롯대왕의 둘째 아들인 헤롯 안디바(Herod Antipas)인데, 그는 이복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고 이것을 지적하는 세례요한을 죽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가 티베리아를 건설했습니다. 헤로디아의 첫 남편이요 살로메의 생부로 알려진 헤롯 빌립은 헤롯 안디바의 이복동생인데 그가 가이사라 빌립보를 건설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립바 1세로 헤롯 안디바의 조카입니다. 사도행전 25장의 헤롯은 헤롯 왕조 마지막 왕인 헤롯 아그립바 바로 헤롯 아그립바1세 아들입니다. 헤롯 가문은 로마정부에는 유대인 대표처럼 처신하고, 유대인들에게는 로마 정부대표로 행동하며 온갖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 왕권은 죄를 짓는 도구였습니다.

헤롯 왕들은 예수님 가까이 있었었습니다. 그들은 초대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목격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초대교회의 이사와 기적들을 자신들의 권력에 해롭다고 여기고 배척합니다. 손에 잡힌 권력을 지키려고 영원한 복을 거부합니다. 지금 우리도 알량한 재물과 권력을 지키려고 영원한 축복을 놓치는 실수를 범하고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사장 : 존 킴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다,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LA 노숙자지원, 아이티 쓰레기마을 아동지원, 수리남 참전용사 자녀돕기에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일부를 나누면 한 아이 인생의 전부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질병과 가난에 허덕이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

작은 나눔 (30불, 50불)으로 희망을 나누는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사랑과 섬김! 행복의 비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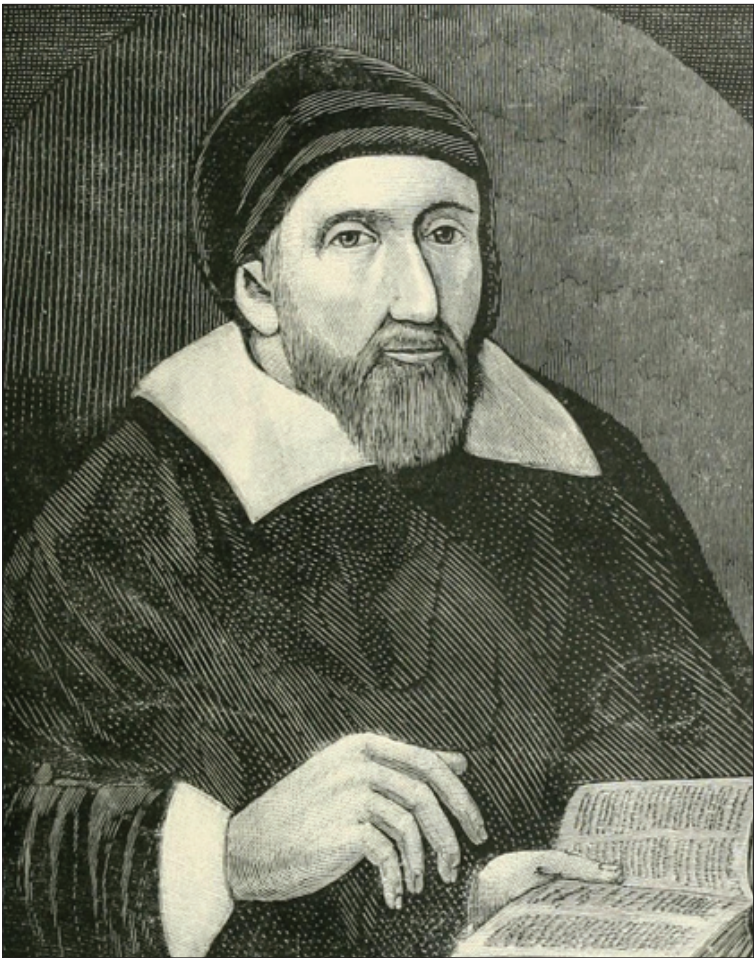
World share USA가 LA에서 특별한 사랑과 섬김을 시작합니다. 월드쉐어는 국제 구호 NGO 단체입니다. 월드쉐어는 사랑과 기아에서 허덕이는 고아와 장애, 빈곤 아동들을 사랑으로 후원합니다.



World Share USA

3123 W. 8th St. #206 LA, CA 90005 후원 문의 :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청교도의 쇠락 “3세대에서 변질된다!”



리처드 매더(Richard Mather; 1596-1669) ©wikipedia

뉴잉글랜드를 개척했던 청교도의 처음 세대가 세상을 떠나갈 무렵에, 대표적인 두 인물 중 한 사람인 주지사였던 윈트롭은 1646년에 서거했고, 보스턴 제일 교회 담임목사 존 코튼은 1652년에 사망했다. 이처럼 뉴잉글랜드에서 지명한 지도자들의 세대교체의 시기와 맞물려서, 잉글랜드에서도 거대한 정치적 격변이 일어났다. 뉴잉글랜드의 첫 백 여 년의 역사 중 중반기와 후반기에 이르게 되면서, 즉 1660년부터 1730년까지 사이에 서서히 변질되어갔다. 동시대에 잉글랜드에서 먼저 정치적 변고가 발생했으니, 청교도 지도자 올리버 크롬웰이 질병으로 사망하였고,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왕당파 귀족들의 권모술수에 의해서 1660년에 찰스 2세의 왕정복고가 이뤄졌다. 새 국왕은 약속과 달리, 강력한 국가교회 체제로의 복귀를 시행하였기에 이제 더 이상, 잉글랜드에서는 이전 세대의 청교도 신앙은 전혀 용납되지 않았다.

뉴잉글랜드에서도 제 2세대와 3세대 지도자들이 등장하여, 영국의 통치자와의 타협을 모색하게 되었다. 여전히 초기 청교도들의 신앙 지침을 따라가고 있었지만, 1648년,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의 교회

조직에 관련한 규범으로 “케임브리지 강령”(Cambridge Platform)을 제정하였다. 칼빈주의 신학을 기초로 하되, 장로교회와는 달리 회중교회의 독립성과 자치권을 강조하는 입장과 생동감이 넘치는 체제적인 청교도 신앙이 반영되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근간으로 채택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자하는 언약적인 의무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금식의 날과 기도, 감사절의 전통을 유지했다. 존 코튼과 뉴잉글랜드 초기 지도자들 (Richard Mather and Ralph Partridge of Duxbury)의 지침에 따라서 거의 모든 사회생활 전체가 청교도 운동의 활동방향에 따라서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것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그러나 큰 변화가 초래된 것은 청교도의 후예들이 1647년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그대로 생활 속에서 날마다 실천하여 나갈 것인가의 문제였다. 첫 세대는 신대륙에 도착한 이후로 먼저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웠고,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집을 지었다. 그러나 다음 세대, 또 그 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그러한 개척자들의 강인한 청교도 신앙이 없었다. 젊은 세대들은 더 어린 나이에 집을

분가해 나갔고, 이로 인해서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어졌다. 1650년대와 1660년대에 유아세례를 받은 세대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복음과 접촉해서 성장하도록 지도하는 일에 실패하였다. 점차 수많은 청교도들의 후손들이 유아세례를 받은 교회를 떠나서 대도시로 집결하면서, 옛 신앙과의 관계성이 단절되어졌다.

뉴잉글랜드 청교도 집안의 후손들이 어떻게 변화해 갔는가는 존 윈트롭의 가정이나, 리처드 매더 가문을 살펴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제 2세대를 거쳐서 3세대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보여준다. 청교도 지도자 집안으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집안이 바로 매더 가문이다.

리처드 매더 (Richard Mather, 1596-1669)는 청교도 목회자이자, 회중교회 제도를 옹호하던 지도자였다. 잉글랜드 리버풀에서 태어난 후, 옥스퍼드 대학에서 수학했고, 1619년에 목사안수를 받았다. 그러나 찰스 1세의 정책이 서명하지 않았기에, 1633년 정직을 당했다. 1635년에 보스턴에 정착했고, 회중교회를 지지하면서 새뮤얼 리터포드와 논쟁을 했다.

인크리즈 매더 (Increase Mather, 1639-1723)는 리처드 매더의 아들로 성장하여, 하버드대학을 졸업하고,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석사학위를 마쳤다. 다시 뉴잉글랜드로 돌아와서 보스턴 “제2교회”의 교사로 평생을 보냈다. 1674년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고, 후에 총장으로 선출되었다가 1701년에 퇴직했다. 그는 하버드 대학에 과학 분야 학과목을 개설하였다. 약 130여 권의 책을 저술했는데, 그중에 아버지의 전기도 있다. 인크리즈 매더는 뉴잉글랜드의 쇠퇴를 걱정하면서, 솔로몬 스토다드(요나단 에드워즈의 외할아버지)가 주장하던 보다 더 자유로운 방식에 대해서 비판했다. 옛 회중교회의 방식과 신학을 고수하고자 분투노력했다. 인크리즈는 존 코튼의 딸 마리아 코튼과 결혼하였고, 그 아들이 코튼 매더이다.

코튼 매더 (Cotton Mather, 1663-1728)는 청교도 목회자이자 신학자로 활약했다. 1678년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학위는 1681년에 받았다. 아버지의 동료 목사로 보스턴 제2교회에서 섬기다가,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다. 코튼 매더는 469권의 저술을

남겼는데, 그가 살던 시대의 보스톤 지역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언급한 것들이다. 1620년에서 1680년까지의 뉴잉글랜드 교회의 역사에 대한 것들도 많이 남겼다.

코튼 매더는 전통적인 방식을 옹호하면서도, 뉴잉글랜드 교회에 변화가 불가피하며,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일생동안 그가 관계한 다양한 분야에서 경건하고도 간간하며 다소 건방지다는 평을 들었다. 여러 명의 주지사들과 교제를 하면서, 정치가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예일대학교의 설립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후원했다.

새뮤얼 매더 (Samuel Mather, 1706-1785)는 코튼 매더의 아들이자, 보스턴 제2교회의 설교자로 섬겼다. 하버드에서 학사학위를 받았고, 예일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글래스고우 대학교에 건너가서, 석사학위를 마쳤고, 훗날 애버딘 대학교에서도 석사학위를 받았다. 하버드 대학교는 그에게 1773년에 신학박사학위를 수여했다. 보스턴에 새로운 교회가 설립되자 (the Tenth Congregational Church) 담임목회자가 되어서 1785년까지 섬겼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은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이 초창기부터 아메리카 원주민들에 대한 선교에 지대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이다. 물론 상호간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평화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배면에는 선교적인 관계성을 갖고자 노력한 사역자들이 많이 있었다. 1663년에는 존 엘리엇(John Eliot)이 원주민들의 언어로 번역한 성경이 출판되었다.

1690년 이후로는 잉글랜드와 프랑스가 전쟁을 하게 되었고, 그 여파가 뉴잉글랜드에도 퍼졌다. 유럽 대륙으로부터 “계몽주의” 운동의 확산으로 밀려들어오면서, 철학자들의 이성중심주의가 뉴잉글랜드의 학교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다. 또한 실용주의라는 미국적 철학은 개인주의 (individualism) 시대를 향해 문호를 활짝 개방하였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자유주의 신학에 대응하는 방안이 뚜렷하지 못했고, 찰스 피니의 부흥운동과 체험적인 종교현상들이 성행하였다. 안타깝게도 18세기에 접어들면서, 자유주의가 영향을 끼치게 되자, 하버드 대학에서는 “성부 유일 신론주의” (Unitarianism)를 지지하는 신학자들이 늘어났다.

1730년대에 요나단 에드워즈가 “대각성운동”(Great Awakening)을 통해서 새로운 갱신과 부흥을 주도하면서, 청교도 신앙이 다시 회복되었다. 워싱턴 장군이 이끄는 군사작전의 승리로 인해서, 1776년 미국은 완전히 자유 독립국가임을 선언하게 되었다.

맺는 말

한국교회에 소개된 기독교복음은 최초의 평양신학교에서 가르쳤던 청교도 신앙의 후예들이 헌신적으로 심어준 진리들을 중심으로 삼고 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약속을 지키고자 전심전력하던 청교도들은 교회와의 언약을 실행하면서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렸다. 모든 청교도들은 “뜨거운” 성도들이었다. 청교도의 열심, 자기 목숨을 던져서 국왕과 국가교회를 거부했던 정신을 이어 받아서, 찬란한 유산을 남겼다. 사회를 갱신하고, 심령의 부흥과 회심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 세계에 확산하기 위해서 선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금도 미국교회가 전 세계에 최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배경에는 청교도신앙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회가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여준 청교도 신앙의 자양분을 충분히 활용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한다. (끝)



김재성 박사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부총장

2021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중준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조회원
- 기독교회(BA), 목회학사(M.Div), 상담학사, 선교학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경호 박사 716261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이사장: 조종근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ceumaster@gmail.com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B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 (626)857-2200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미국 하원 개회 기도서 ‘성 중립 호칭’ 사용 논란

목사 출신 민주당 의원 ‘아멘과 아워멘’ 사용 공화당 ‘아멘 웨손’ 비판

미국 하원이 새 회기를 시작하면서 “아멘과 아워멘”을 넣어 개회 기도를 드렸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5일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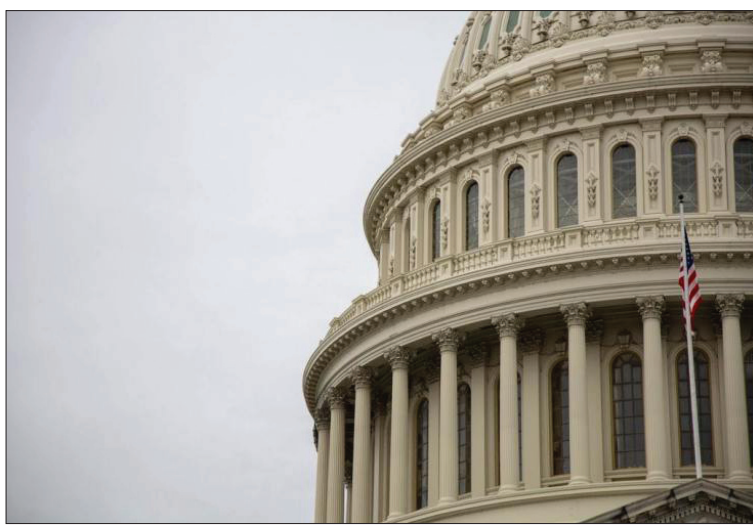
3일 임마누엘 클리버 하원의원(민주당, 전 캔사스시티 주지사)은 117대 의회의 출범을 알리는 개회 기도에서 “우리는 유일신교적인 하나님인 브라마(Brahma)와 많은 다른 신앙들에 의해 다른 이름으로 알려진 ‘신(god)’의 이름으로 구합니다”라며 “아멘과 아워멘(amen and awoman)”이라고 기도를 마쳤다.

원래 아멘은 “그러할 지어다(so be it)”를 의미하는 단어로서, 성별 용어로는 쓰이지 않는다. 반면, 아웨멘은 아멘의 여성적 버전으로 알려

져 있다.

목사 출신인 클리버 의원은 미주리주 캔사스시티 세인트폴 신학대학을 졸업한 연합감리교회(UMC) 목사로서 1972년부터 2009년까지 목회를 했고, 2005년부터 하원의원으로 활동한 경력을 갖고 있다.

한편,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하원은 새 의회의 공식 운영 규칙에서 ‘성중립적 용어’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새 규정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하원 입법부가 정한 조항으로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고모, 삼촌 등 성별 관련 용어(sex-specific terms)를 금지하고, 모든 성 정체성(all gender identities)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국회의사당 ©Unsplash/Joshua Sukoff

이에 대해 펠로시 의장은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역사상 가장 포괄적인 것”이라 치하한 바 있다.

그러자 공화당에서는 전통적인 ‘남녀’성별을 부정하는 민주당이 오

히려 하나님의 성별을 이분화 시키는 모순을 지적했다고 비판했다.

맷 개츠 하원의원(공화당)은 ‘아멘과 아워멘’ 기도에 대해 “아멘과 아워멘? 그들(민주당)은 성별이 두

개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나? 그 밖에 42개의 성별로 해 보는건 어떨까?”라고 트위터에 글을 남겼다.

로렌 보에버트 초선의원(공화당)도 “민주당원들이 아멘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어원을 확인하여 성별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 같다”면서 “(아멘이라는)선한 미덕의 표시를 방해받지 않도록 하라. 그런데 이런 말들은 금지되지 않았었나?”라고 지적했다.

반면, 성중립적 용어 지지자들은 의회의 이번 개정안이 트랜스젠더 또는 제3의 성별로 개인을 확인하는 서곡(overture)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고 CP는 전했다.

개정안을 반대해 온 짐 조단 하원 의원(공화당)은 4일 트위터를 통해 “이것은 통제 불능 상태다. 우리가 아멘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우려를 표했다. 강연숙 기자

존 파이퍼 “자신이 진정한 기독교인인지 시험해보라”



존 파이퍼 목사. ©Cross for the Nations 2020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존 파이퍼 목사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자주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지에 대해 언급하면서 “성경은 그의 의미와 관련해 몇 가지 실질적인 차이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0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파이퍼 목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이너링킷’에 올라온 팟캐스트에 올라온 청취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기독교인처럼 살고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권면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 받은 자니라”)의 의미를 물어본 질문에 응답한 존 파이퍼 목사는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질문할 때 전략적이고 심리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한 이유 중 하나는 고린도후서의 맥락에서 바울과 고린도교인들 중 몇몇 간 실제로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바울은 믿는 자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몇몇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 점에 유의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존 파이퍼 목사는 “베드로후서 1장 10절은 그리스도들에게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라’라고 권면한다”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것과 구원이 라는 장기적인 과정을 지속적으로 살아내는 것 그리고 구원 받았다는 믿음의 증거를 드러내는 사이에 중요한 구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의미에서 두 가지 경우의 결론은 이것이다. 즉 여러분이 천국으로 가는 길에 중생을 경

험하고 의롭다 함을 받은 진정한 기독교인임을 보여주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린도인들에게 한 사도 바울의 권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죄 가운데 살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긴박한 언어로 표현되었다”라며 “자신을 시험하라”는 훈계는 그리스도인 생활의 일반적인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바울 사도는 이런 종류의 시험은 평범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서 말어진 특정 포인트에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그러 한 순간, 누군가에 의해서 또는 아마도 여러분의 양심이 ‘당신은 진정한 기독교인입니까?’라고 물을 지도 모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이 더 이상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바와 같지 않다고 경고할 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진지하게 비판적으로 시험하라. 이것은 여러분에게 경종을 울릴 것이다. 그렇기에 자신을 진지하게 분석하라. 이는 두려운 일이고 매우 어렵지만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다.

이미경 기자

사우스 캐롤라이나, 심장박동기 낙태금지 고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국회의원들은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순간부터 태아의 낙태를 금지하는 2가지 법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7일 보도했다.

지난달 2가지 법안이 사전 제출되었고, 오는 12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총회가 입법 회의를 시작할 때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태아 심장박동 및 낙태로부터 보호법’으로 불리는 ‘SB1’은 지난 12월 사전 제출되었고, 의무위원회(Committee on Medical Affairs)에 회부되었다. 이 법안은 의사가 태아의 심장박동 감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임신한 여성의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먼저 SB1은 의사가 표준의료관행에 따라 의료상 응급 상황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때를 제외하고는, 심장 박동이 있는 태아의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이를 위반할 경우 1만 달러의 벌금, 최대 징역 2년 또는 둘 다에 처해질 수 있다.

또 ‘South Carolina Stands for Life Act’로 알려진, 이와 유사한 법안인 ‘HB 3163’도 마찬가지로 12월에 사전 제출되어 법사위(Committee on Judiciary)에 회부되었다.

이 법안은 상원 버전인 SB1과 같이 피임약 판매나 처방을 금지하는 수단이 아니며, 낙태를 원하는 여성이 형사법상 기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일부 주에서는 태아 심장 박동이 감지될 때 낙태를 금지하는 유사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결국 법정에서 무산되었다.

예를 들어, 지난 7월 빌 리(Bill Lee) 테네시주지사는 심장박동법에 서명했으나, 미국 지방법원의 윌리엄 캠벨(William Campbell) 판사가 발효를 막았다.

당시 캠벨 판사는 “이 법은 낙태를 원하는 환자들에게 즉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낙태 시술자에 형사 제재를 가할 것이다. 시간에 매우 민감한 이 절차의 속도도 임시지위가 처분을 기다리는 동안 금지명령을 구제하는 쪽에 무게를 더한다”고 밝혔다.

작년 2월 미국 제5회 순회 항소법원의 3명의 판사들은 2019년 통과된 미시시피 심장박동 낙태 금지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한 바 있다. 당시 패널들은 다수 의견으로 임신 15주 이후 행해진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의 다른 법에 대한 앞선 결정을 언급했다.

다수 의견은 “2018년 미시시피주는 제한적인 예외를 두고,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지방법원은 이 법을 준수했고, 우리는 최근의 (낙태) 금지 명령을 지지했다”며 “만약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것이 위헌이라면, 임신 초기 단계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것 또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강혜진 기자

www.marhlaw.com

辯護
변호

의뢰인의 원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것을 파악하는 것이 변호의 핵심이라는 것을 늘 염두하고 있습니다. 참된 변호란 의뢰인의 처한 상황과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송은 때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이해상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근절되어야 합니다.

實力
실력

마변호사그룹의 오랜 경험이 물론 실력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핵심 이슈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용되는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 지혜롭고 때론 창의력을 갖춘 것이 마변호사그룹의 진정한 실력이라 하겠습니다. 이 실력은 의뢰인을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무기입니다.

精誠
정성

가장 큰 정성은 의뢰인의 문제를 내 입처럼 생각하는 것일 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은 모든 일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과 오랜기간 귀한 관계를 이어온 것도, 정성어린 마음의 결과라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責任
책임

마변호사그룹에서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물론 밝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의뢰인과의 대화를 중요시 생각합니다. 전화, 이메일, 미팅을 통해 어느때든지 마변호사그룹은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를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信賴
신뢰

변호사의 진정한 기쁨과 긍지는 의뢰인으로부터 얻는 신뢰입니다. 한분 한분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기에 신뢰는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밑거름이요 최종 목표입니다. 진정한 신뢰 없이 친분이 없는 것 같지 않습니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이민법

낮선 땅에서 안정된 신분과 안정된 삶의 정착의 중요성은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에서는 그러한 중요성을 심본 새겨서 가족의 일과 같이 모든 신분변경 및 이민케이스를 꼼꼼함과, 정성과, 넓은 시야를 갖고 대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의뢰인들께 만족한 결과를 드린 것이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기쁨이요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 (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기간 그 실력을 인정 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분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와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 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 합니다. 지피지기가 이루어 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 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상담은 꼭 변호사와 하십시오!
모든 상담은 절대 비밀을 보장합니다.
무료상담 / 이메일 예약 환영

Attorneys
David Marh
Simon Langer
Frederick Alschuler
Gordon Turner
Nicholas Valmes
Walter Roberts
Douglas Villinger

tel. 213.487.9190 fax. 213.487.9484 email. marhlaw@yahoo.com 3325 Wilshire Blvd., Suite 1350, Los Angeles, CA 90010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2020학년도 겨울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수있습니다.

학생수시모집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2020 겨울학기 강의시간표

Day	Time	Class	Professor
Mon	7:00 PM - 9:00 PM	조직신학2 Systematic Theology II	Jong Yong Kim
Tue	7:00 PM - 9:00 PM	바울서신2 Pauline Epistles II	James Lee
Wed	8:30 PM - 10:30 PM	기도학 Theology of Pray	Elijah Kim
Thu	7:00 PM - 9:00 PM	선교신학 Theology of Mission	David Lee
Fri	8:30 PM - 10:30 PM	크리스천 카운셀링 Christian Counseling	Rev, Jong Kim
Sat	7:00 PM - 9:00 PM	에스라,느헤미야 Ezra, Nehemiah	Timothy Song

*청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 과목당 \$100씩으로 청강하실수있습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교육학박사,신학박사,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하나님의 혁명을 위한 변증



민중기 목사
충현선교회

앗 라뭇의 군영에 보냅니다. 그리고 예후 장군을 은밀히 불러 왕으로 기름 붓습니다. 사나운 성격의 장군 예후는 왕궁으로 회군하여 아합의 가문을 멸절하고 예후왕조를 세웁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은 왕을 세우는 정치적 의미의 사건입니다. 하사엘과 예후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었던 명령이고, 엘리야는 결국 자신의 후계자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에서 국제정치에 관여하셨고, 이스라엘의 국내정치에 관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이신 나라들 속에서 가장 격렬한 정치행위인 군사혁명 혹은 궁정 쿠데타를 촉발시킨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성품과 어떻게 관련되어있는지는 차치하고, 하나님의 정치참여 목적을 간단히 살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 율법적인 언약 관계에 있었던 북조 이스라엘을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부르시며, 이전의 언약 관계를 예후의 성격과 위치와 실력을 사용하여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바알 신앙의 폐지는 나뭇의 포도원 사건을 정죄하고 자영농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재건합니다. 여호와 신앙은 율법 신앙입니다. 율법 신앙은 율법에 내재한 정치, 경제, 문화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은 토지를 균점하는 지역적, 혈통적 자영농의 생산기반을 보장하는 소위 고대의 “중산층” “자영농”을 지속시키는 사회경제적 원리입니다.

셋째, 예후의 유혈혁명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사주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 여호와 신앙을 필박하고 선지자를 죽이는 회개가 없는 권력에 대하여 무섭게 징벌하면서 하늘나라의 경제 시스템을 재건합니다. 남은 자 엘리사는 상상 속에서가 아니라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예언적 통치를 완수하는 예언자가 됩니다.

프랑스에는 많은 사상가가 있는데, 신앙을 배경으로 한 구교, 신교의 사상가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 개신교적 배경을 가지고 헌신적인 학문 활동을 한 사람이 폴 리코어(Paul Ricoeur, 1913-2005)와 자크 엘뤼(Jacques Ellul, 1912-1994)입니다. 또한 그들은 성실한 다작가이기도 합니다. 엘뤼의 많은 작품 중에는 『하나님의 정치 사람의 정치』라는 저서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에 두란노 서원에서 번역되었습니다. 미국에 나오기 전, 두란노 서원의 한 직원에게 이 작품을 개작하여 줄 것을 요청 받았지만, 바쁜 일들로 그 요구에 응할 수 없었습니다.

엘뤼는 바로 이 책에서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열왕기하의 많은 정치적 사건들을 그리면서 예후에 대하여 한 장을 할애했습니다. 엘뤼는 엘리야가 호렘산으로부터 받은 명령이 다분히 정치적인 명령이었다고 해석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받은 예언을 충실히 성취합니다. 열왕기하 8장에는 엘리야가 다메섹 방문하여, 자신을 찾아 나온 아람의 중신 하사엘에게 왕이 될 것을 예언합니다. 하사엘은 예언을 듣자마자 자기의 주군 벤하닷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열왕기하 9장에서 엘리사 선지자는 제자를 길르

어려움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입니다!



안성복 목사
다우니제일교회

‘교역자들이 실시간 스트리밍 준비하려면 이전 특별새벽기도를 준비하는 것 보다 몇 배로 들 텐데...’

그런 핑계할 마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때 일수록 성도들과 더욱 열심히 기도하며, 2021년을 준비해야 한다는 마음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갈등을 오래하지는 않았습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에 한 사람이 참여하더라도, 그 것 만으로도 감사하자!” 하는 마음으로 신년 특별새벽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칼럼은 수요일 오후입니다. 그러니까 특별새벽기도 셋째 날이 지났지요.

참 감사하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특별새벽기도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부부가 같이 드리는 가정이 있는 것을 감안해, 대면으로 모였을 때와 거의 같은 인원이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위로와, 큰 은혜와 도전이 된다고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역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실시간에 참여하지 않으시지만, 낮 시간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고, 우리 교인이 아닌 분들도 많이 함께 예배를 드려 주셨습니다.

동부에 계신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메일을 통해 감사의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무엇이든, 안 하려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무엇이든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큰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팬데믹의 일 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오며, 그래도 참 많은 일들을 감당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순종하며 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할 수 있도록 능력 주셨습니다.

“어려움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로 어려움을 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특별한, 신년 특별새벽기도 기간입니다. 우리교회에서는 매 년마다 새해, 첫 주간에 신년 특별새벽기도를 드렸지요. 그런데, 올 해는 더욱 특별한 새벽기도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020년 팬데믹이 시작하는 와중에 우리교회는 ‘사순절 특별새벽기도’를 진행했습니다. 원래는 사순절 40일 특별새벽기도로 마치려고 했는데, 팬데믹으로 인해 기도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2020년 한 해를 지나 왔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2020년은 매일 특별새벽기도를 하며 달려온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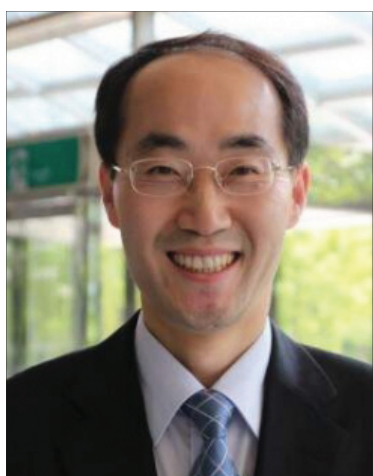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해를 주셨습니다. 새해를 준비하며, 신년 특별새벽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며, 제 마음에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지금 해 오던 대로 새벽예배를 녹화하여 드려도 괜찮지 않을까? 여태까지 매일 특별새벽기도처럼 해 왔는데...’

‘대면이라면 나올 교인들이 있지만, 실시간 스트리밍에 교인들이 얼마나 나오겠어...? 괜히 하다가 교역자들 모두 힘만 빠지는 거 아닐까...?’

정성욱 교수의 조직신학 에세이

거듭남과 중생이란 무엇인가?



덴버신학대학원 정성욱 교수

어나야 한다는 말인가? 성경은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라고 말씀한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다고 말씀한다. 즉 우리의 영혼이 죽었는데 그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죄로 인하여 우리 영혼의 생명력이 사라지게 되었음을 뜻한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 관계 또한 끊어졌음을 의미한다. 죄의 삯이 사망이라는 로마서의 6:23 절의 말씀은 죄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의 죽음 (spiritual death), 육신의 죽음 (physical/biological death), 영원한 죽음 (eternal death)이 초래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거듭난다는 것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뜻한다. 죽은 영혼이 부활하는 것 즉 영적 부활 (spiritual resurrection)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듭남과 중생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의 죽은 영혼을 다시 살게 하는 분은 누구인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죽은 영혼이 죽은 영혼 스스로를 다시 살려낼 수는 없다. 죽은 영혼은 절대 무능력, 전적 무능력의 상태에 있다. 죽은 영혼에게 새로운 생명력을 주셔서 그 영혼을 되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내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거듭남과 중생은 오로지 성령의 역사이다.

그런데 여기서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분

분하지만 성경은 반드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기에, 여기서 “물”은 말씀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야고보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약 1:18)고 말씀하심으로 우리 영혼의 거듭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임을 확증하였다. 요컨대 거듭남과 중생은 성령님이 말씀을 사용하여 이루시는 역사요 사건이다.

그렇다면 거듭남과 중생의 사건에서 죄인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질문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충돌하고 있다. 하나는 거듭남과 중생의 사건에 앞서는 죄인의 역할은 없다는 주장이다. 즉 성령님이 먼저 주관적으로 죄인에게 다가오셔서 그 죄인의 영혼을 다시 살려내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된 중생인이 회개하고 믿게 된다는 견해이다. 다시 말하면 “중생 - 회개 - 믿음”의 순서라는 것이다.

또 다른 견해는 죄인이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먼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의 순간에 성령님이 죄인의 영혼을 거듭나고 중생하게 하신다는 견해이다. 다시 말하면 “회개 - 믿음 - 중생”의 순서라는 것이다. 첫 번째 견해는 강경한 개혁주의 관에서 널리 수용되는 견해이고, 두 번째 견해는 좀 더 온건한 개혁주의 관에서 널리 주장되는 견해이다. 필자는 첫째의 견해를 정죄하지 않으면서, 둘째의 견해를 수용할 수 없는 사실은 거듭남과 중생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주관적인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거듭남과 중생의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의 영혼이 거듭

나고 중생하게 되면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 (adoption)되게 된다. 다시 살아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로열 패밀리 (royal family)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신 후 우리 영혼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하신다. 우리 영혼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근심하실지라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성령님의 내주는 영원하고 영구적인 내주이다 (eternal and permanent indwelling).

그리고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인치셔서 (sealing of the Holy Spirit)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당신의 소유임을 확정하신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엡 1:13-14). 그러므로 한번 거듭난 영혼은 결코 다시 죽을 수 없다. 즉 단번에 거듭난 영혼이 다시 죄로 인하여 구원을 잃어버릴 정도로 타락할 수는 없는 것이다. 중생의 단회성이 구원받은 자의 영원한 안전 (eternal security)을 보장하는 것이다.

영혼이 거듭날 때 그 영혼은 성숙한 또는 장성한 영혼으로 거듭나는가? 아니면 영적인 어린 아기로 태어나는가? 성경의 여러 증거들을 고려할 때 분명한 것은 영혼이 거듭날 때 성숙하고 장성한 영혼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린 아기로 태어난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처음창조시 아담이 성인으로 창조된 것과 대조된다. 새창조의 사건에서 영적인 어린 아기로 거듭난 영

혼은 영혼의 양식을 먹으면서 점점 영적으로 성숙한 자로 자라나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로 자라가는 과정을 성경은 ‘성화’라고 부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도의 중생시 그가 영적인 어린 아기로 태어났기에 지속적인 영적 성숙과 성장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 영혼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육신의 부모가 어린 아기를 낳았을 때에 그 어린 아기가 아직 장성하고 성숙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는 그를 낳아준 부모의 온전한 자녀이다. 그의 자녀권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마찬가지로,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가 영적인 아기로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그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권을 가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다. 우리는 이 점에서 결코 흔들리면 안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듭남과 중생에 직결된 사안이다. 믿음으로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간과 공간과 여건을 허락하시면 영적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 중생 이후 우리가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하는 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 즉 영생의 질과 농도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땅에서 누리게 될 상급과 관련되어 있다.

거듭남과 중생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마음, 새로운 이해력, 새로운 성향,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거듭남과 중생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주시는 가장 탁월한 선물들 중의 하나이다.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CD Printing

CD전문 주니어미디어입니다.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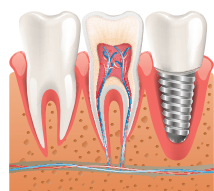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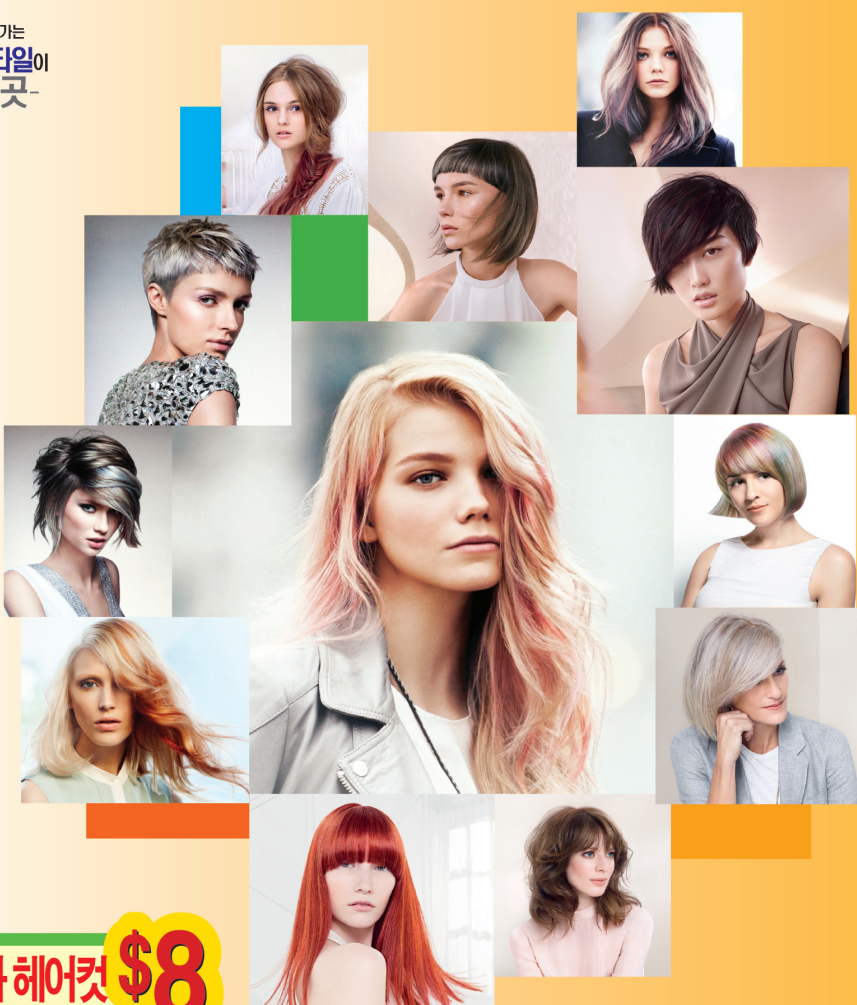


치과의사 이동희
 이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칼라

\$40 up \$20 up

*단, 칼라만 하시면 \$40^{up}

매직스레이트

\$120 up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앞서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 stylist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 헤어칼라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가이오, 책망의 디오드레베

요한3서 1:11-15



서울성인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11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옵지 못하였느니라 12 데메드리는 못사랑에게도, 진리에게도...(중략)...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면대하여 말하리라 15 평강이 네게 있지어다 여러 친구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각 친구 명하여 문안하라

요한삼서는 사도 요한이 성령의 유기적 영감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나머지 요한1, 2서와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함께 기록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3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지금 우리가 부르는 장로와 조금 다릅니다. 그 당시의 장로는 하나님이 기쁨 부여 성령으로 사로 잡히게 하시고, 성령계 이끌리며 구령 성과를 위하여 복음도 전하고, 목회도 하게 하셨던 사도들을 일컬어 장로라고 했습니다.

1. 목자된 사도 요한의 심정

오늘 말씀은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사적으로 보낸 편지 같지만, 이 편지의 내용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역사의 끝날까지 이 땅위에 있게 될 모든 교회들에게 교훈을 주시기를 위하여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2절) 이것은 사도 요한이 성령의 계시와 감동에 의해 우러난 표현의 기록입니다. 사도 요한은 왜 가이오라는 사람을 이렇게 알뜰하게 여겨니까? 그 다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3절) 성령에 사로잡혀서 생령 살리는 사역을 위하여 쓰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종들은 예나 지금이나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 그 영혼이 하늘 소망을 가꾸며 진리 안에서 행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형제들이 와서 가이오에 대해 이야기 하는 말에 귀 기울이게 되고, 가이오가 애쓰고 수고하는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파하기 위하여 애쓰는 수고였다 사실을 듣게 될 때, 내가 너를 심히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고백하기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4절)라고 하였습니다.

2. 칭찬 받는 가이오

그 다음에 5절부터 보면 가이오가 왜 사도 요한의 즐거움이 되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진실한 일이니" 그때 사도요한은 예배소교회를 거점으로 사역하면서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복음 확장을 애쓰는 중,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자기 생업과 직장도 중단하고, 가족도 그대로 버려

둔 채 성령에 이끌려서 유럽과 아시아 여러 지역으로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을 순회 전도자라고 했습니다. 자비량으로 선교하였는데 이 사람들의 열심이 특심하다 보니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전도는 계속되어 집니다. 전도 중에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개 쫓기듯이 쫓겨나기도 하고, 여러 날 입에 풀질을 못한 채 굶주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린 장자를 부둥켜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한 목숨 기꺼이 제물로 바치리라는 각오로 다니다보니 돈이 다 떨어지고, 의복도 헤어져 못쓰게 되고, 신발도 망가졌습니다. 이제 몹시 지쳐 힘들었을 때에 이 가이오가 여관을 하면서 식당을 운영했는데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 집에 가면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듯 그렇게 반갑게 맞이합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다른 순회 전도자들처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지 못할지라도 자기는 여관과 식당을 경영하면서 여러 교회로부터 파송 받아 순회 전도 나온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집에 모셔 들이고는 그저 씻기고, 편히 쉬게 하고, 몸보신 시켜서 먹였습니다. 건강이 회복되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전도의 사명을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가이오는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순회전도자들을 보살피고 뒷바라지 하라는 사명을 받았으니, 이 사명을 위해서 힘주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전도해야 할 몫을 전도자들이 대신 감당해 주는 것이 진심으로 고마워서 전도자들을 돕는 것이 손해가 아니고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도 여행자들을 통하여 구원 얻게 되는 숫자가 늘어날 때 마다 그들의 수고와 함께 가이오도 그들을 지원함으로 전도사역에 동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별같이 빛나는 보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순회전도여행자들이 자기 교회로 돌아옵니다. 교회 앞에서 전도 여행의 과정과 그 성과를 보고하게 될 때, 보고 하는 사람들마다 이 가이오에 대한 칭찬이 입에 침이 마를 정도였습니다. 그 교회 목회자였던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 간절했고, 너무나 고마웠고, 또 이런 사람이면 하나님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리셔서 세계 선교에 더 요긴한 역할로 구령의 성과가 넘치도록 영광 돌려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편지하면서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되고, 네가 계속 건강해서 오래오래 이런 역할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본을 세우고 성과로 영광 돌리기를 내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3. 책망 받는 디오드레베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꾀문하고도 유위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9-10절) 앞에서는 칭찬 받는 가이오였고, 이번에는 책망 받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어느 교회를 맡아서 교회를 이끌어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불행하게도 성령을 받지 못했고, 진리를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 간다면 그 교회는 하늘나라 갈 사람을 단 한 사람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 말, 행동은 자기중심으로 이기적이고, 명분과 실속 챙기기에 급급해서 교회를 자기 것으로 관리하며, 최대한 이용해 먹자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사도 요한의 평가는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디오드레베는 우리를 접대하지 않았다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들까지 교회에서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이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않고 책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11절)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므로 성령에 이끌려 쓰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고, 알아보지 못했고, 믿어 살지도 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지만 맥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않고 속히 만나 보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이오를

향한 기대가 넘치고, 너무나 소중하고 보배로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만나본 일이 없지만 자기 양떼들이 순회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보고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도 여행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요긴한 역할로 봉사하는 가이오가 그토록 존귀하고 보배로웠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네가 하는 일이 계속 잘 되기를 기도하고, 또 네가 건강해서 오래오래 살며 이런 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전도하는 일에 요긴히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 뚜렷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말씀은 오늘 이 시간에도 실행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 즉, 성령의 은사와 영력으로 무장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교회로부터 온 유대 땅, 그 유대 땅을 벗어나서 사마리아, 또 거기도 복음 전하고 벗어나서 땅 끝까지,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참여하기를 힘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랑과 은총의 대상이 될 것이고, 전도하는 일에 관심도 없고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하여 전도나 선교를 훼방하는 비협조적인 태도는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재촉하는 사람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 다니지만 지옥 갈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칭찬의 가이오, 반대로 책망의 디오드레베 둘 중에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이 시간 양심으로 각자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인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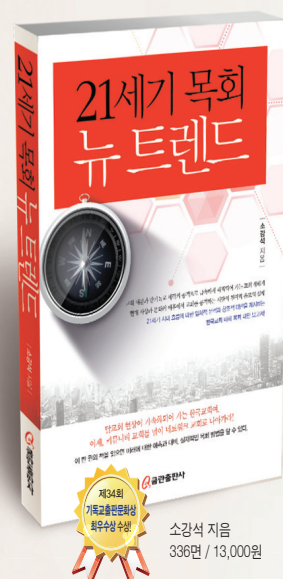
한 국 선 교 설 교			
T V 한국 방송 설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 V 미국 방송 설교		라 디 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통합)

부총회장 당선 "한국교회 발전을 위해 크게 쓰임받길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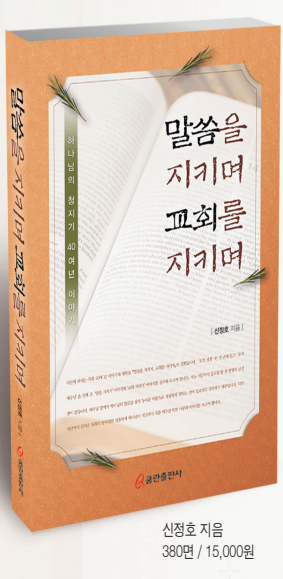


21세기 목회 뉴 트렌드

교회 내분과 반기독교 세력의 공격으로 급속하게 파괴되어가는 교회 생태계 현대 사상과 문화의 배후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과 음모의 실체 21세기 시대 흐름에 대한 입체적 분석과 창조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국교회 미래 목회 대안 보고서!

탈교회 현상이 가속화 되어가는 한국교회여, 이제, 커뮤니티 교회를 넘어 네트워크 교회로 나아가라! 이 한 권의 책을 읽으면 미래에 대한 목표와 대안, 실효적인 목회 방법을 알 수 있다.

소강석 목사
336면 / 13,000원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 하나님의 청지기 40여 년 이야기 -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킨다"는 청지기 사상은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킴으로써 오는 고난도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부지런히 전도할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온 전주동신교회와 신정호 목사의 이야기다. 교회 개혁을 꿈꾸는 신학생, 목회자, 성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신정호 목사
380면 / 15,000원

한글인터넷주소: 쿨란, 쿨란출판사 홈페이지: www.coolran.co.kr 주소: 서울특별시 중로구 이화장길 6 ☎ 02-747-1004

박육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디트리히 본회퍼, 오해와 편견 (2)

본회퍼, 독일 민족주의 이면에 도사린 광기의 원천을 보다

독일 집단적 민족주의, 인간의 폐쇄적 교만 반성
본회퍼 피조세계 고찰 출발점, 공동체 아닌 개인
독일 신학계 왜곡된 심성 사로잡혀 있던 점 간파

◆신학과 집단: 독일 집단주의의 역사적 배경

통상 본회퍼의 신학이라 하면 ‘공동체의 신학, 사회성의 신학’이라고 알고 있는 연구자들이 많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하나, 많은 이들이 이것이 본회퍼 신학의 결과적 단면이라는 사실까지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본회퍼의 피조세계 고찰의 출발점은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이다. 신앙의 공동체와 사회에 대한 본회퍼의 사유는 원래 인간 개개인의 실존적 개별성을 깊게 분석하고 파고드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의 최초 대표 저서 <성도의 교제>(Sanctorum Communio)는 공동체와 사회의 성격을 현대 루터교 신학의 관점에서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평등과 존중의 관계를 파괴하는 인간 본연의 죄성을 벗어나기 위한 공동체 모델을 정립하는 데 주력하는 내용을 담아내고 있다.

그가 이 논문(〈성도의 교제〉는 본회퍼의 박사학위 논문이었다)에서 공동체와 사회, 즉 집단에 우선 주목한 이유는, 이를 집필하던 1927년 당시의 독일 교회와 사회 전반이 심각한 독단성과 폐쇄성에 사로잡혀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독일의 참혹한 패전으로 끝난 뒤, 독일 국민들은 바이마르 공화국 체제 하에서 경제침체와 배패감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주된 원인으로서는 19세기 비스마르크 집권기 이후

독일 내부에서 크게 강화된 우월감에 가까운 민족주의를 들 수 있다.

현대 독일의 원류라 할 수 있는 프로이센과 북독일 소국들은 항상 유럽 역사에서 주변부, 약체 취급을 받아왔다. 근대 전반부에는 오스트리아-스페인의 합스부르크 황가, 프랑스 부르봉 왕가, 스웨덴 제국 황가, 러시아 로마노프 황가 사이 알력과 전쟁 가운데서 말 그대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역사를 겪어 왔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1618-1648년 치러진 30년전쟁을 들 수 있다.

이렇게 열약했던 북독일의 사정은 근대 후반부로 들어서면서 크게 달라지기 시작한다. 우선 18세기 프로이센 군주로 프리드리히 1세와 2세가 집권하면서 국력이 크게 신장되고 영토가 점진적으로 확장되었으며, 중세적 사고를 벗어나 계몽주의적 시대정신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18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는 임마누엘 칸트의 등장으로 서구 철학과 학문의 주도권을 획득하였고, 19세기 초 프랑크나폴레옹 군의 침략으로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이후 빌헬름 1세와 오토 폰 비스마르크의 협업 하에 당대 유럽 내 최강국이었던 영국, 프랑스, 러시아에 뒤지지 않는 신흥 제국으로 부상했다.

쉽게 말해 독일은 길고 긴 유럽 역사 내내 기를 펴지 못하다가 18-19세기 들어와 급성장한, 비유하자면 갑작스러운 행운으로 졸부가 된 것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던 민족 국가였던 것이다.



1944년 7월 20일에 벌어진 히틀러 암살 및 나치정권 전복시도에 가담했던 신학자, 디트리히 본회퍼. ©Duchesne 대학

통상 이와 같은 국가들의 정서적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뿌리깊은 피해의식, 다른 하나는 극단적 폐쇄성에 근간을 둔 독단성이다.

주변국들의 강성함에 항상 위축되어 있었던 까닭에 타민족에 대한 적개심과 피해의식이 생겨났고, 항상 약자의 입장에 처해 있었던 이유로 주변에 자기를 개방하는 일을 경계해 왔다. 그리고 이런 심성이 수백년 이상 누적되면서 민족 전체를 짓누르는 고질적인 정신적 문제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신학과 인격: 인식 행위와 피조적 존재의 불협화음

사실 이 문제는 오늘날 한국인 전반의 심성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는 것이다. 고려가 원나라의 실질적인 식민지가 된 13세기 이후, 한반도는 문명 발전의 극심한 정체로 인

해 근 600년 이상 전 세계에서 최약체 수준의 국력을 가진 국가로 존속해 왔다.

그러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 국력 신장에 주력한 지도자들과 미묘한 국제정치적 정황을 이용해 역사상 유례없는 빠른 국력 신장과 문명 발전을 이뤄냈다.

이런 운 좋은 상황이 피해의식, 폐쇄성, 근거없는 자신감이 결부된 민족 단위의 정신적 문제를 유발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이런 정신적 문제의 대표적인 징후로서 특하면 ‘K-(K-방역이니, K-외교니 하는 용어들)’를 붙여대기 일쑤인 현 한국인 다수의 자부심을 빗자해 표출되는 열등감과 피해의식은 언급하기 미망할 지경이다.

독일 상황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한 북독일 전역이 빠르게 강대국이 된 상황은 정신적으로 불안한 이에게 칼을 쥐여준 것이나 다름 없는 일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은 빌헬름 2세 본인의 태생적 장애에 기인한 정신적 콤플렉스가 독일 민족 전체의 피해의식 및 폐쇄성과 맞물려 발발했고, 이후 군인과 민간인 양측을 모두 합쳐 3천만에 가까운 사망자를 낳는 거대한 비극으로 발전했다.

본회퍼는 칼 바르트와 마찬가지로, 당대 독일 신학계가 독일 민족을 지배하던 왜곡된 심성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간파한다.

1차대전 개전 당시, 아돌프 폰 하르낙을 비롯한 독일 신학계 지도자들은 빌헬름 2세를 지지하는 93인의 지성인 성명(1914년 8월)을 발표한 바 있다. 칼 바르트를 신정통주의 신학으로 돌려놓은 이 암울한 역사를 본회퍼 역시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본회퍼는 이처럼 교만과 폭력을 정당화하는데 거리낌이 없었던 독일 민족주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던 광기의 원천을 기독교적 인간 이해에서, 원죄로 타락한 인간 본성에서

찾는다.

본회퍼가 우선 <성도의 교제>를 통해 개별성이 말살된 독일 집단주의 사고를 비판하고 기독교적인 사회적 관계 모델을 제안한 것은 그만큼 독일 사회 전반의 민족적 심성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로 나아진 것이 없었던 급박한 현실을 인지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성도의 교제>를 집필한지 3년만에 그 내용을 보강하기 위한 종교철학 논문 <행위와 존재>(Akt und Sein)를 저술한다. 본회퍼의 교수자격 취득 논문이기도 했던 이 연구는 죄성에 깊게 물든 인간의 정신이 어떤 식으로 자신과 세계, 그리고 하나님을 대상화하여 인식하려 하는지 분석함으로써, 인간 인식의 신학적-존재론적 한계를 지정하는 동시에 이 한계를 애써 외면하다 못해 자력으로 넘어서려 하는 인간의 교만한 심성을 폭로하는데 주력한다.

<행위와 존재>의 주된 비판 대상은 당대 독일 신학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칸트 선형론과 독일 관념론, 그리고 후설에서 셸러로 이어지는 현상학적 존재론과 하이데거의 실존론적 존재론이다. 이 사상들은 당대 독일 사상계 전반에 신학적 인간 이해 방법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본회퍼는 이 사상들을 일관된 철학사적 흐름 내에서 조망하고 비판하기 위해, 인간의 폐쇄적인 인식 행위와 피조세계의 유한한 존재 사이의 어긋남에 먼저 주목한다.

이는 성서적 창조론과 헤라클레이토스의 유전의 존재론에 힘입어 인간의 인식행위가 사물의 존재 자체, 칸트 식으로 말해 사물 자체를 포착할 수 없는 본연의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논증하는 본회퍼식 인식 비판의 출발점이 된다.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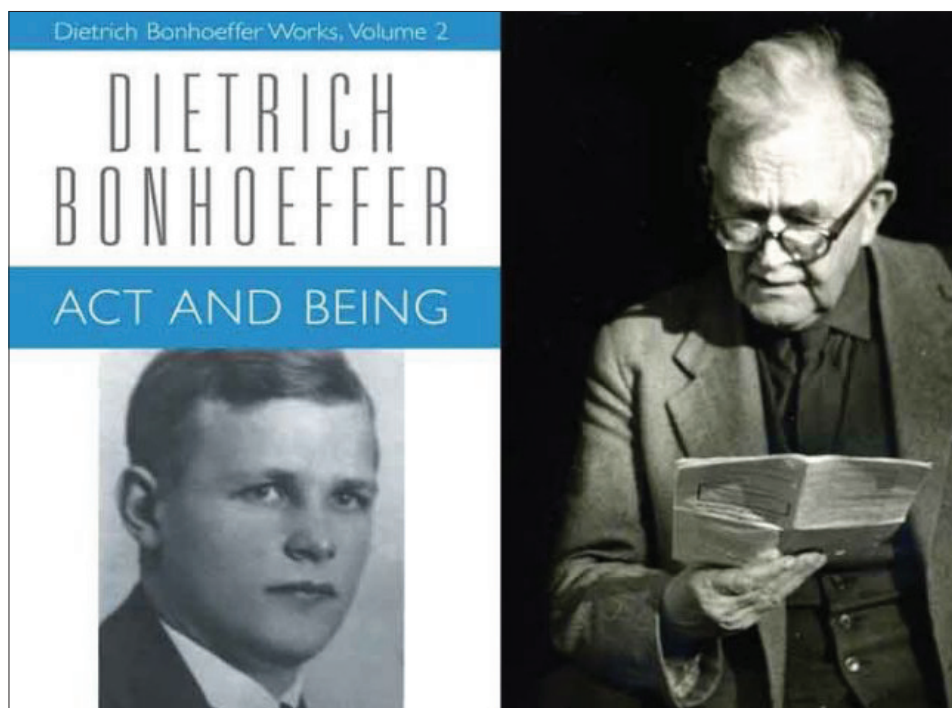
◆박육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1910년 유럽 중앙부의 강대국으로 급성장한 독일 북부의 프로이센 왕국.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프로이센의 빌헬름 2세. 개인적인 정신적 콤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한 채 독일의 맹목적 자부심과 폐쇄적 집단주의를 이용해 독일민족 전체를 전쟁의 참화 속으로 이끌어 간 인물이다.



본회퍼의 두 번째 주저 <행위와 존재>와 본회퍼의 신학적 우군이었던 스위스의 신정통주의 신학자 칼 바르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셀리온 CELLREON  유한양행 *New Origin*

www.cellreon.com | 213-738-8000